

朝鮮朝末期 經濟思想

金 柄 夏*

1. 序 言

1876年の開港은 社會經濟面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思想에 있어서도 큰 衝擊을 주었다. 開港을 契機로 하여 表面化한 前近代의 價値觀과 近代의 價値觀의 葛藤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지만, 近代의 價値觀이 開港이란 他律的 契機에 의하여 비로소 發生한 것은 아니었다.

近代思想인 開化思想은 開港 以前에 이미 發生하였으며, 開化思想의 發生은 英正年間に 全盛期를 이루었던 實學思想和 繼起의 關係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丙子條約은 義務規定만 있고 權利規定이 없는 片務的인 不平等條約이었지만, 丙子條約으로 이루어진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門戶開放은 社會經濟의 여러 方面에 걸쳐 큰 變革을 招來하였고, 이 問題에 대해서 學界에서는 여러 角度에서 다양하게 研究가 蓄積되고 있으나 經濟思想史의 研究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實情에 있다.

그리하여 이 論文에서는 開港을 前後한 時期, 즉 實學思想의 形成期부터 舊韓末까지의 經濟思想의 變遷을 檢討하고자 하는 것이다.

2. 實學思想 形成의 諸條件

壬辰 丙子の 兩大 國難으로 우리 나라는 深刻한 財政危機에 逢着하였고, 大衆의 生活은 매우 어려운 狀態에 있었다. 그러나 그 後 平和가 維持되자 移秩法과 水利施設의 普及, 地代形態와 農業經營樣式의 變化, 大同法의 實施와 商品 및 貨幣流通의 保進 등 前期에는 想像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變化가 일어났고, 身分制度의 動搖도 하나의 社會的 趨勢로 되었다.

이와 같은 事情下에 17世紀 中葉에는 實學思想이 發生하였지만, 이 時期에는 國內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國際의으로도 變動이 심한 때였다. 西勢東漸은 初期重商主義 段階부터 있었던 現象이었지만, 基督教의 布教活動과 一致되어 西洋人의 東洋進出은 더욱 積極性을 띠게 되었다.

東北 아시아에 있어서 基督教가 먼저 발을 붙인 곳은 中國이었고, 中國에 波及되었던 西洋人 神父들은 그 곳을 據點으로 하여 聖書의 刊行과 傳教活動을 하였는데, 하연 世界地圖와 西洋의 科學知識 등도 그들을 통하여 紹介되었다. 宣祖 36년(1603)에는 마테오 리치(利馬竇)가 지은 『萬國輿圖』가 우리 使臣의 손에 의하여 들어 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 「天主實義」를 비롯하여 西洋人이 쓴 書籍들이 傳來되었다. 壬辰倭亂以後 知識人들의 民族意識과 自我意識은 한층 더 컸었고, 一般 大衆은 戰後의 混亂期에 있어서 傳統的 因習

* 慶熙大 政經大 教授

에 거리낌없이 精神的 支柱를 布求하는 傾向이 있었으므로 『天主實義』와 『萬國輿圖』등에 關心을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書籍은 새로운 價值觀과 世界觀의 形成에 寄與하였다. 光海君 6년(1614)에 編纂된 『芝峰類說』에서 李晔光은 『萬國輿圖』와 『天主實義』등을 引用하여 地球가 둥글다는 것과 天主教 敎理를 紹介함으로써 中國 中心의 華夷思想에 금이 가게 하였고, 새로운 世界觀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李晔光보다 4歲 年上이며 吏曹判書를 지낸 바 있던 柳夢寅은 그의 著書『於于野談』에서 『天主實義』의 內容을 仔細히 소개하였다¹⁾.

이와 같은 書籍들이 天主教의 普及에 寄與하였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지만, 한편 직접 中國에 가서 天主教 敎人이 된 사람도 있었다. 許筠은 17世紀 10年代에 使臣이 되어 明나라에 往來하면서 天主教에 入敎하였고, 열 두 가지 祈禱文과 地圖를 傳來하였다. 許筠은 한글 小說에 嚆矢 『洪吉童傳』의 著者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우리 나라 최초의 天主教 信者가 되어 儒敎의 價值觀에서 脫皮하려 하였다. 許筠은 天이 聖人보다 높다고 前提하여 聖人の 가르침보다는 天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다²⁾. 許筠에게 있어서 儒敎의 敎條主義는 이미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26歲에 文科에 及第하여 한 때 刑曹判書와 議政府參贊을 지낸 바 있지만, 性品이 浩蕩하고 既存秩序에 대한 抵抗意識이 강한 사람이었다. 許筠의 이와 같은 思想의 形成은 當時의 激動하는 社會事情을 反映한 것이기는 하지만, 天主教의 影響을 無視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初期의 天主教는 兩班과 知識人들에 의하여 能動的으로 紹介되고 信奉되었다. 18世紀에 이르러서는 漢江 流域에 居住하던 南人系 學者들에 의하여 天主教가 研究되고 信奉되었다. 李瀾과 安鼎福 사이에 檢討되던 天主教는 그들의 門人に 의하여 信奉運動으로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³⁾.

天主教의 傳來와 때를 같이하여 소개된 西洋에 관한 여러 가지 先進의 知識은 새로운 學風의 造成에 있어서 背定的으로 作用하였다. 17世紀에 와서는 明·淸에 갔던 使臣과 漂流한 和蘭人을 통해서도 西洋에 관한 知識을 얻은 機會가 많아졌지만, 특히 仁祖 9년(1631)에는 陳奏使 鄭斗源 一行이 明으로부터 火砲 千里鐘 自鳴鐘 『西洋國風俗記』 『治曆緣起』를 비롯하여 地圖와 天主教 書籍 등을 傳來하여 知識人들의 意識構造 改革에 寄與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實學思想이 形成되는 階段에 中國에서는 政治적으로 큰 變動이 있었다. 즉, 李朝後期에 하나의 學風으로서 實學思想이 形成되는 段階는 明나라가 沒落하고 淸의 政治的 版圖의 擴大와 經濟的 黃金期를 맞이하는 時期와 一致한다. 淸나라는 우리 나라보다 먼저 西洋의 宗教와 科學技術에 접하였고, 또 各種 產業이 發達하였기 때문에 淸나라와의 外交의 關係가 密接해지고 使臣의 往來가 頻繁해지자 傳統的인 蔑胡思想과 現實과의 乖離를 認識하게 되었다. 淸나라의 높은 經濟發展段階는 두 가지 側面에서 우리 나라의 經濟思想에 影響을 미쳤다. 하나는 淸의 經濟發展을 意識한 時務論의 展開이고, 다른 하나는 北學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滿洲族의 文物制度다 하여 無條件 白眼視할 것이 아니라 先進의 部分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從來의 華夷概念의 修正을 意味한다.

李朝後期の 實學思想은 空理空論에 빠진 朱子學의 學風에 對應하여 發生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性理學은 朱子學 一色으로 研究되고 있었는데, 尹絲淳 教授에 의하면 韓國의

1) 柳南相 「於于堂 柳夢寅」(『李乙浩博士 停年紀念 實學論叢』所收)參照.

2) 許筠의 말은 安鼎福의 『揀軒隨筆』과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卷 53, 斥邪敎 辨證說에 收錄되어 있다.

3) 柳洪烈 「韓國基督教史」(1) (『韓國文化史大系』所收) 474面.

性理學은 宋·明의 理學보다 한층 더 實證性이 薄弱한 空理空論의 性格을 띠었고, 그에 따라 價值優位의 名分論의 合理主義만을 絶對視하게 되어 17世紀 以後의 激變期에 現實克服의 限界를 두러내고 實學發生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⁴⁾.

그리고 이 時期에는 反朱子學으로서 陽明學도 導入되어 實學思想의 形成에 寄與하였다. 陽明學은 明 나라의 王守仁(號는 陽明, 1472~1529)이 朱子學에 反對하여 唱導한 儒學의 一派로서 우리 나라에는 宣祖 때부터 研究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李滉學派와 李珥學派의 勢力이 너무나 컸고, 支配層은 朱子學을 支配理論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陽明學은 排擊되어 陽性的 研究가 不可能하였다.

陽明學의 基本思想은 心即理說과 致良知說, 知行合一說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것은 朱子學과 對立되는 것이다. 心即理說은 眞理가 個人의 思想 속에 있다는 主觀的 觀念論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個人尊重思想과 통하는 것이므로 封建秩序를 天理로 여기는 朱子學과 不相容의 關係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致良知는 良知의 實現을 뜻하는데, 致良知說에서는 良知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內在한다고 前提하여 人間의 本質의 平等, 즉 四民平等을 주장하여 朱子學과 對立하였다. 認識論으로서의 知行合一說도 朱子學者의 先和後行說과 根本의으로 다른 것이었다.

陽明學의 이와 같은 性格은 朱子學派로부터 異端視하는 口實이 되었고, 強力하게 排斥되었다. 陽明學은 몇몇하게 研究할 수 없는 與件에서도 주로 少論派學者들에 의하여 隱密히 研究되었다. 17世紀 後半부터 18世紀 30年代에 걸쳐 陽明學을 獨步의으로 研究한 사람은 鄭齊斗였다. 그는 天文學과 曆算에도 造詣가 깊었다. 즉 陽明學者이자 實學者였던 것이다. 陽明學이 實學의 形成 내지 發展에 미친 影響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洪以燮 教授가 指摘한 바와 같이 儒敎主義 政治理念에 있어서 보다 急進의일 수 있었음은 星湖가 『待訪錄』을 읽는 데서, 즉 陽明學者의 思潮를 受容한 데서 可能性이 있었던 것이다⁵⁾.

17世紀에 있어서는 異端的 儒敎學派로서 漢學도 有力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 朱子學者들의 敎條主義的 傾向에 反旗를 든 尹鑣 朴世堂 등은 經濟의 先驅者로서 또는 實學者로서 注目할 만한 業績을 남겼다.

反朱子學의 陽明學과 漢學은 中國의 研究動向과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 明나라에서는 朱子學이 官學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陽明學과 漢學 등이 多樣하게 研究되었고, 明清交替期에는 經世致用의 學이 일어났다. 黃宗羲(1610~1695)의 『明夷待訪錄』, 顧炎武(1613~1682)의 『日知錄』, 王夫之(1619~1692)의 『黃書』 등은 清朝에 入仕하기를 꺼려하는 明나라 遺民들의 經世致用學을 代表하는 業績들이다. 民族意識이 강한 明나라 遺臣·遺民들의 學問의 特徵은 經世致用과 考證에 있었는데, 淸國政府의 位置가 安定되어 감에 따라 經世致用의 側面은 疎外되고 考證의 側面이 크게 發展하여 考證學이 學界를 風靡하게 되었다. 李朝後期의 實學思想이 淸朝의 考證學의 影響에 의하여 形成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實學思想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淸國考證學의 미친 影響은 컸던 것이다.

요컨대, 李朝後期의 實學思想은 壬辰倭亂 以後의 激變하는 社會를 敏感하게 反映한 것이었지만, 天主教와 西洋에 관한 知識, 中國에 있어서의 새로운 學風등도 實學思想 形成의 客觀的 條件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3. 實學思想의 發展

4) 尹絲淳 「性理學의 韓國의 變容」(『韓國史의 再照明』所收) 441面.

5) 洪以燮 『韓國史의 方法』 97面.

實學思想이 性理學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볼 때 實學思想의 萌芽는 性理學이 導入되던 當時에 發生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李氏朝鮮이 創建된 以後에는 鄭道傳 金時習 李珥 등의 말에서 實用的 改良主義를 着取할 수 있다. 특히 金時習의 現實批判 意識은 李珥의 改良主義의 時務論에 影響을 미쳤고, 李珥의 學風은 李朝後期の 實學先驅者들에 의하여 受容되었다고 생각된다.

17世紀 初葉 實學思想 形成의 諸條件이 成熟되어 감에 따라 李睟光은 實證의이며 百科全書의 業績을 남겼고, 韓百謙은 歷史와 地理 方面에서 實證의 學風을 樹立하였다. 許筠의 自由스러운 氣像이라든가 金堉의 大同法 및 鑄貨流通에 관한 改革案 및 實事求是의 學風 등은 17世紀 中葉 以後의 實學思想 形成에 있어서 先驅의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實學思想은 이와 같이 先驅者들의 業績이 蓄積되는 過程에서 發生하였다. 實學思想의 鼻祖 柳馨遠은 平生을 學問研究에 바쳐 많은 業績을 남겼지만, 1670年代初까지 完成을 본 『磻溪隨錄』은 實學思想의 發生을 매듭짓는 劃期的인 業績이었다.

柳馨遠의 實用·實證의 時務論의 研究는 當時로서는 獨步의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時務論은 封建의 改良主義 路線에 따른 것으로서 많은 知識人들에 의하여 愛讀되었다. 그러나 實學思想이 社會의으로 부움을 이룬 것은 18世紀 以後였다. 특히 柳馨遠의 實學體系를 한층 더 深化시키고 實學思想을 堅固한 盤石 위에 올려 놓은 사람은 李瀛이었다. 그는 李珥와 柳馨遠을 崇仰한 南人系 學者로서 柳馨遠의 經世致用論을 抽象化하여 한층 더 높은 段階로 發展시켰다. 柳馨遠이 李朝後期の 實學思想을 낳은 사람이었다면 李瀛은 그것을 튼튼하게 기른 사람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18世紀 初期인 肅宗 34년(1708)에는 李瀛의 父親이 淸나라에 使行하였을 때 數千卷의 古書를 購得하여 驪興 李氏 家學의 基盤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李瀛의 學問은 더욱 幅이 넓어졌을 것이다⁶⁾. 그는 높은 人格과 幅넓은 學問으로 말미암아 많은 門人이 輩出되어 經世致用學派의 確固한 土臺를 構築하였다.

한편 經世致用學派에 뒤이어 北學派 學者를 中心으로 한 利用厚生學派가 實學派의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利用厚生論은 經世致用論의 同位概念이며, 利用厚生學派가 經世致用論을 否定하였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經世致用을 前提로 하여 利用厚生論을 主張하였던 것이지만, 利用厚生論은 技術을 革新하고 生産手段을 改善하여 生活를 넉넉하게 하자는 것이었음에 대하여 經世致用論은 制度的 改革에 重點을 둔 巨視論이란 點에서 區分될 수 있는 것이다. 比學派에 속하는 洪大容 朴趾源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등은 利用厚生의 모델을 淸나라에서 求하여 商業과 交通 水利施設 등 相對的으로 落後되었거나 혹은 從來에 輕視되어 온 部分의 開發을 促求하였다. 北學論者의 主張에는 先進의 見解가 包含되어 있으나 그들의 思想은 基本的으로 封建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實學思想의 最盛期를 이룬 것은 英正年間이었다. 英祖와 正祖의 實學에 대한 깊은 理解와도 關係가 있지만, 어쨌든 實學思想은 이 時期에 와서 爛漫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時務論이 나오게 되었고, 時務論의 大部分은 實學的 傾向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 時期에는 經世致用論 및 利用厚生論과 直接的으로 關係가 적은 學問을 다룬 實學者들도 적지 아니하였다. 歷史 考證學 地理 漢學 등 直接 實用할 수 있는 分野가 아니라 하더라도 實證의 合理的으로 研究함으로써 새로운 學風을 樹立한 學者들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純祖가 即位한 19年初初 以後 實學이 發達할 수 있는 與件이 크게 달라졌다. 老論 僻派가 得勢하였고, 黃嗣水 事件이 發生하였다. 正祖의 信任이 두터웠던 代表的인 實

6) 同書 87面 參照.

學者 丁若鏞은 邪教徒란 억울한 陋名을 쓰고 流配되었다. 그러나 丁若鏞은 謫所에서도 꾸준히 研究하여 實學을 集大成하였다. 그의 研究는 經世致用과 利用厚生論을 包括한 것이었으며, 그의 論理는 實證的이었다.

丁若鏞에 이어 實學史上 빛나는 業績을 남긴 사람은 李圭景이었다. 그는 北學派 李德憲의 親孫으로서 『五洲行文長箋散稿』를 著述하여 百科全書의 學風의 最後를 裝飾하였던 것이다.

4. 過渡期的 經濟思想

李朝後期の 代表的 經濟思想들의 業績에 包含되어 있음은 疑心할 餘地가 없겠으나, 한편 非實學的인 經濟思想도 廣範하게 存在하고 있었다. 社會經濟의 急激한 變化를 바라지 않고 封建的 秩序를 溫存하려는 朱子學者들은 大體로 이와 같은 部類에 屬했다. 예컨대 代表的 朱子學者 宋時烈의 경우를 보면 理氣論에는 關心이 많았으나 實學者들의 實用·實證的 學風이나 富國強兵論에 대해서는 外面하였다.

政治的 與件의 變化로 19世紀初 以後 朱子學이 다시 活氣를 띠게 되었으나 實學思想은 退潮를 면치 못하였다. 특히 19世紀 40年代 以後 實學思想의 退潮는 加速化하여 研究風土가 달라졌다. 많은 知識人들이 先行 實學者들의 業績에 共鳴하면서도 經世致用論이나 利用厚生論을 反復하여 主張한다는 것은 陳腐한 일이고, 또 當時의 執權層에게는 그러한 主張이 採擇되지 않을 것이므로 研究의 焦點을 달리하거나 局外者로 될 수 밖에 없었다.

19世紀初부터 開化思想의 發生期까지의 實學思想의 退潮期에 活躍한 實學者 中에는 金正喜와 같은 徹底한 考證學者도 있었고, 崔漢綺와 같은 著名한 哲學者도 있었다.

書藝家로 有名한 金正喜는 淸나라 考證學 方法을 導入하여 實事求是의 方法으로 金石文을 研究하였고, 崔漢綺는 西洋의 自然科學에 造詣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徐敬德 系統의 氣哲學을 繼承 發展시켰다. 그는 『明南樓全集』을 비롯하여 많은 著作物을 남겼는데, 그의 經濟論은 實學派的 背景을 가지면서도 開化派의 經濟論과 恰似하였다. 開化派의 경우처럼 人材教育의 重要性을 力說하였고, 政治가 잘 되어야 產業이 發達한다는 事實을 強調하였다. 政治의 不當한 干涉을 積極 反對함으로써 自由放任主義의 냄새를 풍긴 것이라는 말을 많이 벌어서 民生을 위한 事業에 많이 쓰는 것을 美德으로 여긴 것은 實學者로서 特異한 것이다. 그는 開港 直後까지 生存한 사람이었으므로 資本主義社會를 어느 程度 理解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開化論을 具體的으로 展開시키지는 못하였으나 開化派 人士들과 理念的으로 大差가 없었던 것이다.

5. 19世紀 後半期의 社會經濟와 開化思想의 發生

17世紀 中葉 以後 商品貨幣經濟가 發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世紀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如前히 自給自足的 農業社會를 면치 못하였다. 被支配層에 대한 官吏의 收奪은 이 時期에 와서 더욱 強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田政·軍政·還穀 등 三政의 紊亂이 極度에 달하여 백성의 不滿은 高潮되었고, 封建體制는 崩壞期에 到達하였다. 哲宗 13年(1862)의 晉州民亂 以後 連鎖反應의으로 일어난 農民蜂起는 官吏의 收奪에 대한 抵抗이었으며, 封建的 支配體制에 대한 反抗이었다.

한편, 19世紀 後半期는 歐美의 先進國에 있어서 產業資本主義가 獨占資本主義段階로 移行하는 時期였으며, 原料의 供給地요, 商品市場이요, 資本輸出로서 植民地 爭奪을 위한 戰爭이 熾熱하게 展開되던 時期였다. 西勢東漸 現象은 이 무렵에 와서 더욱 露骨의으로

나타났다. 西洋의 巨大한 艦船의 頻繁한 出沒과 阿片戰爭(1840年~1842年), 英佛聯合軍의 北京侵略(1860年) 등은 西勢東漸의 具體的 形態였으며, 이와 같은 事件들로 말미암아 國民의 危機意識은 날로 높아 가고 있었다. 그리고 西氣東漸의 結果로 斷行된 日本의 開港(1854年)과 明治維新(1868年)도 衝擊的이었다.

19世紀 後半期の 社會 및 國際情勢의 變動은 思想面에 있어서도 큰 變化를 惹起시켰다. 韓國思想史에 있어서 轉換點을 이루는 東學思想 및 開化思想의 發生은 이와 같은 與件의 變動을 敏感하게 反映한 것이다.

社會的 精神的 激動期에 있어서 從來의 宗教는 大衆의 信仰의 安息處로서 包容力이 弱하였고, 새로 들어 온 基督教은 儒敎社會에 쉽게 土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彈壓으로 널리 普及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哲宗 11年(1860)에는 慶州의 吏屬 家門에서 出生한 崔濟愚가 西學(基督教)에 對立하는 民族의 宗教로서 東學을 提唱하였다. 그는 從來의 風水思想과 儒佛仙의 敎理를 土臺로 人間이 곧 神이요, 人心이 곧 天心이라 하여 人間의 理性을 尊重하는 宗教를 創建하였던 것이다.

開港 以前인 1870年代初까지는 實學思想을 土臺로 한 開化思想이 形成되었고, 곧 政治的 勢力으로서의 開化派가 形成되었다. 實學의 集大成者인 丁若鏞과 北學派에 屬하는 實學者들의 開化思想의 形成에 준 影響은 컸다. 그러나 開化思想과 實學思想은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었다. 實學思想은 封建의 테두리 안에서의 改革思想이었음에 대하여 開化思想은 近代의 改革思想이었다. 開化思想은 實學思想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封建의 支配體制를 合理的으로 再編成하거나 單純히 修己治人의 傳統의 思想을 實現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祖國의 近代化를 促進시킴으로써 國家의 危機를 克服하고 自主獨立하려는 資本家의 改革思想이었다.

그리고 實學思想은 兩班層에서 形成·發展되었으나 開化思想은 中人層에 屬하는 劉鴻基(大致), 吳慶錫 등에 의하여 形成되기 시작하였다. 吳慶錫은 北京으로 가는 使臣의 通譯官으로서 中國을 往來하면서 各種 新刊書籍을 購入하여 친구인 劉鴻基에게 提供하고 함께 開化問題를 研究하였는데, 購入한 書籍 中에는 『海國圖志』와 『瀛環志略』 같은 影響力이 큰 책들도 包含되어 있었다. 『海國圖志』와 『瀛環志略』은 1850年 以前에 輸入되었으나 當時는 開化思想과 連結되지 못하였는데, 1870年을 前後해서는 吳慶錫 劉鴻基 朴珪壽 등에 의하여 評再價되었고, 開化思想의 形成에 크게 貢獻하였다⁷⁾.

劉鴻基는 豊富한 學識과 높은 人格을 가진 漢醫師로서 吳慶錫과 親분이 두터웠다. 두 사람은 서울의 北村에 居住하는 兩班子弟 中에서 同志를 求하여 近代의 改革에 着手할 것을 構想하고 있었는데, 한편 平壤監司로 있던 朴珪壽도 刑曹判書 兼 漢城判尹이 되어 1869年에 上京한 때부터 1876年에 別世할 때까지 金玉均 朴泳孝 朴泳敎 洪永植 徐光範 등 젊은 엘리트들을 北村의 齋洞에 있는 私第에 集合시켜 朴趾源의 文集을 講義하였고, 開化思想을 紹介하였다. 그의 啓蒙活動은 右議政을 辭退한 1875前 以後에 더욱 活潑하였다. 그는 朴趾源의 親孫으로서 實學思想에 造詣가 깊었으므로 自然히 實學思想을 土臺로 하여 開化思想과 開化派 形成에 橋梁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吳慶錫과 劉鴻基 線에서 軋터가던 開化思想은 朴珪壽에 의하여 더욱 굳어졌고, 하나의 政治的 勢力으로 成長하여 갔다. 吳慶錫은 中國語 通譯에 能하여 10여차례나 北京에 다녀

7) 『海國圖志』는 1844年에 中國의 經世家 魏源에 의하여 著述되었고, 『瀛環志略』은 1850年에 福建 巡撫 徐繼畲에 의하여 著述된 各國의 歷史 地理 關係 書籍으로서, 『海國圖志』는 1850年 以前에 輸入되어 趙寅永 金正喜 崔漢綺 등이 收藏하고 있었다(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2~18面 參照).

왔고 高宗 9年(1872)에 進賀兼謝恩使가 派遣된 때에는 正使인 朴珪壽의 首席 通譯官이 되어 隨行한 事實이 있다. 그 後에도 두 사람은 開化에 뜻을 같이 하여 더욱 가까워졌다. 金玉均과 朴泳孝 등 開化派의 巨物들은 齋洞의 朴珪壽 曷을 드나들면서 吳慶錫 劉鴻基 등과 더욱 친해졌다. 二元的으로 싸웠던 開化思想이 朴珪壽 曷을 求心點으로 하여 一元化하였던 것이다.

6. 開化思想의 發展

19世紀 後半期에 접어들어 形成된 開化思想은 自律的 近代化의 徵兆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近代化의 條件이 成熟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었다. 1876年의 開港은 이와 같은 與件下에 他律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것이 傳統的으로 好戰視되고 島夷視되던 日本의 資本主義에 의하여 強要되었다는 點에서 그 衝擊은 더욱 컸던 것이다. 開港을 契機로 表面化한 近代의 價值觀과 前近代의 價值觀과의 葛藤, 開化思想과 保守思想과의 葛藤 같은 것은 이와 같은 事情을 反映한 것이다.

그러나 一部 中人層과 兩班層에서 發生한 開化思想은 開港을 契機로 하여 하나의 社會의 潮流를 이루었다. 守舊派와의 葛藤 속에서도 開化派가 꾸준히 成長할 수 있었던 것은 開港과 더불어 開化思想의 底邊이 크게 擴大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880年代 以後는 國內의 新聞이 社會啓蒙에 貢獻한 바 컸으며, 外國에 留學하였거나 外國에 다녀온 人士들의 啓蒙活動도 活潑하였다. 그러나 開港 以後 開化思想이 普及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80年代 前半까지도 開化派의 政治的 基盤은 脆弱함을 면치 못하였다. 開化派 靑年들에 의한 甲申政變은 일단 成功하는 듯 하였으나 淸의 干涉과 淸國을 背景으로 한 守舊派의 勢力 때문에 失敗로 돌아가고 말았다. 高宗 35年(1894)의 甲午改革은 日本의 影響下에 遂行된 開化運動의 結實이었다.

開化派의 政治勢力의 伸張은 別問題로 하고 그 사이 開化思想은 꾸준히 發展하여 俞吉潸에 의하여 集大成되었다. 그리고 開化思想은 俞吉潸 金允植과 같은 穩建派와 金玉均 朴泳孝 李東仁과 같은 進急派 사이에 若干의 差異가 있을 수 있었고 時間的으로도 差異가 있었다. 開化思想의 特徵은 세 段階로 나누어 類型化할 수 있는데, 1870年代의 開化思想의 焦點은 開國하여 海外事情을 把握하는데 있었고, 1880年代의 그것은 先進技術의 吸收에 의한 富國強兵論에 있었다. 그리고 1890年代 以後는 民權과 完全自主獨立思想이 開化論의 核心을 이루고 있었다.

開港 以後 開化派에 의한 啓蒙思想이 점차 燎原의 불길처럼 擴大되는 過程에서 開化思想의 內容이 變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近代의 文物制度의 受容樣相도 變化하였다. 開港 以前의 開化思想은 淸을 거쳐 들어 왔고, 日本을 意識하지 않은 一方通行의인 것이었으나 開港 以後는 事情이 달라졌다. 日本의 近代化에 注目하여 近代化의 模型을 日本에서 찾으려는 것이 開化派의 支配的 潮流로 되었다. 開港에 있어서 機先을 制한 것이 日本이었다는 客觀的 情勢의 變化도 無視할 수는 없겠지만, 丙子條約 當時부터 吳慶錫은 日本의 近代의 文物制度에 關하여 好奇心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金玉均을 招請하여 日本의 近代化에 關하여 曷을 必要가 있음을 力說하였고⁸⁾, 특히, 開化僧 李東仁은 高宗 19年(1878)부터 日本人이 經營하는 本願寺 釜山分院을 통하여 日本의 近代化에 關한 資料를 蒐集, 研究하기 시작하였고, 劉鴻基 金玉均 등과 親分을 가져 開化에 關한 情報을

8) 古筠記念會編『金玉均傳』上卷 48面 參照.

提供하였다⁹⁾. 1880年代에는 1870年代에 造成된 基礎 위에 近代的 富國強兵論이 論議되었다. 이 時期에는 資本主義의 發達過程에 나타났던 侵略의 性格에 대해서도 認識이 깊어졌다. 예컨대, 高宗 25年(1888)에 쓴 朴泳孝의 上疏文에는 萬國公法과 國際의 信義가 있다고 하더라도 自立自存하는 힘이 없는 나라는 列強에 의하여 侵略 당할 수 밖에 없음을指摘하였다¹⁰⁾. 1890年代以後는 이와 같은 外勢의 克服과 完全自主獨立의 前提로서 開化運動이 展開되었다. 1880年代의 開國論者와 1890年代의 富國強兵論者로 自主獨立思想을 意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1890年代에 와서는 外勢의 侵略이 더욱 露骨의으로 나타났고, 完全自主獨立에 대한 民族的 自覺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리하여 外勢의 克服과 完全自主獨立의 前提로서 開化運動이 展開되었고, 獨立協會의 活動과 開化運動은 同一한 것으로 看做되었다. 外勢의 危脅을 克服하려면 近代化 作業이 先行되어야 하겠지만, 近代化의 一環으로서 民權確立이 重要視되었다. 民主化가 缺如된 近代化는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民權과 國權이 同時의으로 強調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事情에 基因하는 것이다.

7. 保守思想

開港後 開化思想이 大勢를 이루게 되었지만, 한편 保守思想도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西洋의 技術과 科學은 基督教을 隨伴하여 祖國을 危機에 몰아넣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開化 自體를 反對하는 風潮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風潮는 大院君 執政期의 攘夷政策으로 더욱 強力해졌지만, 大院君이 隱退하고 閔妃 一派가 試圖한 改革運動은 大院君의 政治에 反對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目標意識을 가진 近代化 作業은 아니었다.

保守思想의 底邊을 이룬 階層은 大體로 閥閥層을 비롯하여 祿負商과 같은 執權層의 庇護를 받는 商人層, 그리고 儒生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衛正斥邪論을 내세워 反開化運動을 展開한 것은 地方의 愛國의 儒生들이었다.

衛正斥邪思想은 儒敎의 正統性을 지키고 異端을 물리치려는 것으로서 反基督教·反侵略思想이라 할 수 있지만, 時期에 따라서는 그것이 反基督教로 나타나기도 하고 反侵略 또는 兩者의 綜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衛正斥邪論은 開港과 더불어 비로소 擬頭되었던 것은 아니다. 反基督教으로서의 衛正斥邪論은 基督教의 普及過程에서 흔히 論議되었던 것이지만¹¹⁾, 開港以後의 衛正斥邪論은 反侵略과 反侵略運動의 一環으로서의 反開化가 主要한 目標로 되었다. 즉, 「衛正」은 儒敎의 理念과 倫理 道德으로 維持되는 社會秩序가 異端에 의하여 흔들릴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守舊하자는 것이고, 「斥邪」란 말은 「攘夷」와 같은 內容으로 使用되었던 것이다.

衛正斥邪論의 處地에서 보면 倭·洋이 一體이므로 倭·洋과의 和親을 前提로 하는 開化思想이나 開化를 促進시키는 開港은 西洋諸國이나 日本의 侵略을 許容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따라서 衛正斥邪論者들은 雲揚號의 脅迫下에 締結되는 丙子不平等條約을 強力하게 反對하였다. 예컨대, 李恒老의 門下生인 崔益鉉은 高宗 17年(丙子·1876) 正月 22日 丙子條約을 反對하는 上疏文을 올렸는데, 그는 日本과 洋賊은 同一하므로 和約을 反對한다는 것과 萬若 國王이 그의 呼訴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갖고 있는 도끼로 自決하겠

9) 1879년에는 金玉均과 朴泳孝가 開化資料의 蒐集을 위하여 李東仁을 日本에 派遣하였다.

10) 朴泳孝「上疏文」(『日本外交文書』21卷所收)

11) 『正祖實錄』15年 11月 丁丑條 參照.

다고 말했다¹²⁾.

이와 같은 衛正斥邪論은 開化思想이 執權層에까지 浸透된 以後에 있어서 더욱 熾烈해졌다. 高宗 22年(1881)의 이문파 辛巳衛正斥邪上衛는 그 代表的인 例라 하겠다. 이 事件은 日本에 갔던 修信使 金弘集이 駐日清國參事官 黃遵憲의 『朝鮮策略』을 갖다가 高宗에게 바친 것이 契機가 되어 發生하였다. 『朝鮮策略』에서 問題가 된 點은 朝鮮의 敵은 러시아이므로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하여 自強해야 한다는 것과 基督教은 朱子學과 差異가 없으므로 排斥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즉 衛正斥邪論의 當爲性을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策略』이 傳來되었다는 消息을 들은 衛正斥邪派 儒生들은 四方에서 일어나 金弘集 등 關係者를 糾彈하였다. 李晚孫을 疏頭로 하는 慶尙道 儒生들의 萬人疏에서는 中國人 黃遵憲을 日本의 앞잡이로 基督教의 善神으로 規定하여 『朝鮮策略』을 傳來한 金弘集의 處斷을 要求하였고, 京畿道 儒生 申櫟은 上疏하여 金弘集뿐만 아니라 李鴻章과 內通하는 李裕元까지 糾彈하였다.

儒生들의 上疏 중에서 江原道 洪在鶴의 그것은 매우 極端的인 것이었다. 洪在鶴은 萬言疏를 올려 高宗이 親政한 以來 孔孟程朱之大道가 日落月亡함을 慨嘆하였고, 封建의 秩序下의 改良을 內容으로 하는 安民扶國策을 提示하였다. 그는 洋物을 使用하는 國王과 重臣들을 非難하여 妥協하지 않았으므로 處刑되어 34歲로 悲慘한 最後를 보냈지만, 衛正斥邪論에는 이와 같이 保守의 性格이 強靱하게 남아 있었다.

衛正斥邪上疏는 反侵略의 愛國主義에 立脚한 것으로서 이 點에서는 開化派의 主張과 같다고 하겠으나 開化派로서는 衛正斥邪上疏의 保守의 性格을 坐視할 수 없었다. 開化派에 의한 衛正斥邪論을 糾彈하는 上疏도 끊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衛正斥邪思想은 開化派의 抵抗에 의하여 後退하지 않았다. 衛正斥邪派의 反侵略의 愛國主義는 訴求力을 發揮하여 同調者들을 糾合하게 되었고, 그 結果 衛正斥邪運動은 反日義兵運動으로 發展하였다.

義兵運動은 高宗 21年(1895)의 閔妃 虐殺事件과 斷髮令을 導火線으로 하여 展開되었는데, 많은 衛正斥邪派 儒生들이 義兵運動에 加擔하여 抗日運動을 하였다. 1890年代 以後 日本의 侵略行爲가 더욱 露骨의으로 나타남에 따라 消極的인 衛正斥邪論만으로써는 너무나 無力하였다. 行動으로써 日本國主義의 侵略을 막는 것이 民族의 課題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0世紀에 와서는 傳統的인 尊華攘夷思想도 빛을 잃게 되었으므로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의 性格의 糾彈이 愛國의 知識人들의 關心事로 되었다. 그리하여 開化派와 保守派의 思想的 差異는 점차 解消되었던 것이다.

8. 開化派 經濟思想의 特徵

開化派 經濟思想의 核心을 이룬 것은 近代化로써 外勢를 克服하려는 데 있었다. 侵略의인 近代化를 成就하여 富強해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開化派의 經濟思想은 大體로 富國強兵論과 關聯되고 있었다.

土地制度論에서는 實學派의 影響을 받은 痕迹이 엿보이지만, 開化派 人士들은 土地의 私有制를 主張함으로써 實學派의 均田思想을 克服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株式社會를 組織하여 農商工業을 經營해야 한다고 主張한 것도 實學派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開化思想의 集大成者로 알려진 兪吉濬은 自由放任下의 工業의 發達과 國富와의 關係에 言及하여 國內의 自然資源이 貧弱한 나라라 하더라도 工業이 發達하면 貿易을 통하여 모

12) 『勉菴集』 卷3.

자라는 資源을 補充할 수 있다고 논하였으며, 朴泳孝는 國家의 財貨를 人體의 血液과 같다고 前提한 다음 生産을 增大시켜 血液을 豊富하게 하고 運輸는 便利하게 하여 流通을 促進시키면 國家가 富裕해진다는 事實을 指摘하였다¹³⁾. 開化派의 經濟論이 西洋의 經濟學에서 影響을 받았거나 先進資本主義 諸國의 經濟發展을 聯想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開化派의 時務論은 大體로 經濟發展을 意識한 次元이 높은 것이었다. 예컨대, 實學派에서도 道路와 車制의 必要性이 指摘되었으나 開派化의 그것은 한층 더 論理的이었고, 工業化의 先行條件인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란 觀點에서 道路 汽車 汽船 등의 利點이 論議되었다. 그리고 教育의 必要性도 요셋말로 表現하여 人力開發이란 觀點에서 強調되었다. 實學派의 教育論은 封建的 支配層을 위한 것이었음에 대하여 開化派의 그것은 大衆의 啓蒙과 人力開發에 의하여 近代化를 達成하려는 데 主眼點이 있었다. 近代의 學校를 設立하여 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배우게 하고, 新聞을 發刊하여 社會教育에 寄與할 것을 主張한 것은 實學派의 경우와 判異한 點이라 하겠다.

13) 朴泳孝「上疏文」